안녕하세요. 친인척에게 9년전 빌려준 돈을 받고 싶습니다.

법적으로 지급명령이 결정되어야만 돈을 받을 수 있을 것 같아 문의 남깁니다.

저의 상황을 글로 설명하겠습니다.

돈을 빌려준 사람은 저희 아빠(홍근준)이고, 빌려준 대상은 삼촌(홍주성, 아빠와 사촌지간) 입니다.

저희 아빠와 삼촌은 어렸을 때부터 막연한 사이로 자주 얼굴을 봐왔으며,

2014년, 삼촌이 요청하여 아빠가 삼촌회사(주)대한스톤)에서 2달정도 근무하던 중 삼촌이 형편이 어려워져 아빠에게 돈을 빌려달라 사정을 하였습니다.

가까운 사이라 외면할 수 없어 은행이자 수준만 받겠다는 구두상의 약속만 받고 돈을 빌려주게 되었습니다.

돈을 빌려준 당시 삼촌회사에 아빠가 근무하여 매일 얼굴을 보고 지냈으며, 오랜기간 함께 지낸 사촌지간이라

차용증도 없이 구두상 약속으로 진행되었고, 빌려주는 과정에 대한 음성녹화 및 문자내용은 현재 없습니다. (2015년 아빠 사망)

현재 가지고 있는 **증빙자료**는 아래와 같습니다.

**1. 당시 돈이 오갔던 계좌이체 내역**

\* 계좌이체 내역 요약

- 2014년에 총 4,000만원을 빌려줬고(계좌이체), 2014~2015년에 원금 2,000만원과 이자 590만원을 받았습니다 (계좌이체, 내역에 이자라는 별도 표기는 없음)

- 2015년 상반기에 아빠가 암 진단을 받았고, 여름쯤부터 병상에 계시다가 10월에 돌아가셨습니다. 그러면서 삼촌이 연락두절(연락처 변경, 거주지 불분명)되어 돈을 갚아달라는 독촉을 못했습니다(2016~2022년)

**2. 2015년 아빠가 암 진단을 받아 병상에 계시면서 아빠 대신 엄마(박현숙)가 삼촌에게 돈을 갚아달라는 문자 내용**

**3. 2023년 돈을 갚겠다는 문자 내용**

- 2015년 이후 삼촌 연락두절(연락처 변경, 거주지 불분명)되어 수소문하다가 포기하며 지내오다가 2023년6월 삼촌의 아빠(저희 아빠의 작은아버지)가 돌아가시면서 장례식에 엄마가 다녀오셨고,

그 곳에서 삼촌을 다시 만나게 되어 연락처와 월 20만원씩이라도 돈을 갚겠다는 약속(구두)을 받아왔습니다.

이후 1달이 지났음에도 돈을 갚지 않아 엄마가 2차례 월 20만원씩이라도 보내달라는 문자를 보냈습니다. (답변을 받음)

저는 변호사를 선임하여 돌아가신 아빠의 채권을 엄마가 받고, 삼촌에게 법적으로 대여금지급명령이 이루어지도록 처리하고 싶습니다.

또 당시에 이자를 주겠다는 약속이 구두상으로 이뤄졌지만, 최초 빌려준 날로부터 원금을 다 갚는 날까지의 이자는 받고 싶습니다.

그 외에 삼촌이 연락두절, 행방불명의 기간(16~22년)이 매우 길어서 삼촌의 재산 조회 및 가압류가 가능한지도 알고 싶습니다.

**<첨부서류 1, 2>**

1. 아빠통장 계좌이체 내역(아빠-삼촌)

\* 계좌이체 내역 요약

2014년9월 1일~2015년7월9일

총 4,000만원을 빌려주고, 2,000만원(이자 590만원)을 갚음

-> 이자로 보낸 돈은 이자라고 명시되어 있지 않음

20140901 600만원 -- 빌려준 돈

20140901 400만원 -- 빌려준 돈

20140925 300만원 -- 갚은 돈

20141005 200만원 -- 갚은 돈

20141028 2,000만원 -- 빌려준 돈

20141029 600만원 -- 빌려준 돈

20141029 400만원 -- 빌려준 돈

20141108 500만원 -- 갚은 돈

20141116 160만원 -- 갚은돈/이자

20141124 50만원 -- 갚은돈/이자

20150306 150만원 -- 갚은돈/이자

20150512 120만원 -- 갚은돈/이자

20150601 1,000만원 -- 갚은 돈

20150709 110만원 -- 갚은돈/이자

2. 2015년, 2023년 문자 내용(엄마-삼촌)